

여야, 전북지역 후보자 지원사격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본격 시작됨에 따라 민주, 오늘 군산·완주·전주·익산서 지원유세 평화, '일당 독주 폐해' 강조 표몰이 나서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31일 본격 시작되면서 '승리'를 위한 후보들간의 뜨거운 전쟁(?)이 시작됐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선거 초반 우위를 점하려고, 세몰이를 하기위해 각 정당의 경우 중앙당 차원에서 대

대적인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31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 선대위는 6월 1일 전북 군산을 찾아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찬 수석 공동선대위원장, 이석현·강기정·박영선 공

동선대위원장 등 유력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한다.

회의 장소를 군산지역으로 정한 것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군산 회의를 시작으로 완주(봉동)와 전주(모래내시장), 익산(익산역) 등을 잇따라 찾아 지원유세를 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 역시 지난 30일 군산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당 독주 폐해'를 강조하며 표몰이

에 나섰다.

특히 민주평화당은 대규모 유세단을 구성해 경합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벌일 예정이다.

같은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중앙당에서도 전북을 찾아 지지를 적극 호소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민주당도 평화당도 아닌 바른미래당에 적극적인 상원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고, 정의당 심상정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서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달라"고 강력 호소했다. /김진성 기자



도지사·교육감·전주시장 후보 담긴 선거 벽보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13일 앞둔 지난 31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동아아파트 담벼락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선보일 선거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전북도선관위, 도내 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지난 31일 전북지역 14개 전 시군에 선거벽보가 붙기 시작하며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을 알렸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2780여 곳에 첩부하기 시작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

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한 눈에 비교 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해당 선거구선관위를 거쳐 최근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성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6월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고 전한 후 "선거벽보 훼손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본사 인사

▲우병희
임:국장
명:익산취재본부장
(6월 1일자)

남북철도연결 협력 논의

오늘 고위급회담서

1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핵심의제인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놓고 남북 당국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고위급이 처음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은 만큼, 당장 동해선 연결에 대한 밀그림이나 실질적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 31일 통일부에 따르면 6월 1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에 참여하는 남측과 북측의 대표단 명단에 각각 김정렬 국토교통부2 차관과 김은영 철도성 부

장이 포함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위급 회담에선 10·4선언 합의 사업에 대한 점검과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연결과 현대화, 실질적 조치 등에 대해 남북 양측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0·4선언에는 북한 도로 철도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철력단지,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경제특구 건설 등 협력 사업이 포함됐다. /뉴시스



지난 31일 전주시 롯데백화점 사거리 일대에 선거차량들의 신나는 음악소리가 울려퍼지자 길을 지나던 시민들이 유세차량의 노래에 따라 흥겹게 춤을 추고 있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도내 곳곳에 '선거송' 울려퍼져

선거 로고송으로 가수 흥진영이 인기 선거 음악이 씨끄럽다는 주민 신고도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 개시일인 31일 전북지역 곳곳에서 선거 로고송이 울려 퍼지고 있다.

이날 각 정당들은 전주시 효자동 도청 사거리, 군산시 수송동 롯데마트 사거리, 익산시 영등동 전자랜드 사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다.

행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틀어놓은 선거 로고송이 주요 골목마다 울려 퍼졌다.

정당별 가지관을 담아 개사한 가사와 흥겨운 리듬이 행인들의 주의를 끌었다.

정당 로고송으로는 가수 흥진영의 노래가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정당이 흥진영의 노래를 로고송으로 제작했다. /김진성 기자

각 정당들은 선거송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아모르파티(김연자)·엄지척(흥진영)·치얼업(트와이스), 자유한국당은 아기상어(동요)·사랑의배터리(흥진영)·동요매들리, 바른미래당은 뽀뽀(모모랜드)·행복(HOT)·잘가라(흥진영), 민주평화당은 비행기(거북이) 등을 선택했다.

반면 선거 음악이 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불만소도 나오고 있다.

전주에 사는 조모(24·여)씨는 "차를 타고 지나는데도 음악이 시끄럽게 들렸다.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돼 소음 공해가 걱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지방경찰청 상황실에는 '선거 유세가 시끄럽다'는 신고가 30건 이상 접수됐다. /김진성 기자

외교부 "북·중·러 3자회담 동향 예의주시"

리 세르게이 외무장관,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러 3자회담이 홍콩에서 열릴 것이라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중·러 3자회담 관련 동향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현재 여러가지로 엄중하고 예민한 상황이기에 민감할 수 있는 외교 활동이 비공개 형식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각 급에서 상호방문, 전화통

화, 주한대사관 측 등과의 협의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러한 활동을 통해 관련국간 수시로 상황평가를 공유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 중"이라며 "주변국과의 협의에는 대외에 공개된 활동이외에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 다양한 소통과 협의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